

# 부도 ... 도산 ... 경제위기

##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 기업인들 애독 '사고전환'

주가가 폭락하고, 가야 해대 뉴코아 같은 대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가 내로라하는 국내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소리없는 인기를 더하고 있다.

불자인 성공관대 유희화교수가 부처와 경영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가지를 결합시켜 불안정한 현재의 우리경제에 산뜻한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 급속하게 성장하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기업의 생리를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기업 경영자의 훌륭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무한경쟁의 구조속에서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향해 달려온 이들에게 탁견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인기비결이다.

"지난 7월 이 책을 접한 후로 항상 가까이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다시금 펼쳐보곤 한다"는 OB팩주 유희택 사장은 "불교나 경영에 그리 심

오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막힘없이 읽을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해준다"고 이 책을 읽은 감상을 말했다.

지난 5월 한국언론자료간행회에서

**"막힌가슴 뚫리는 듯"**

**"경영난국 해결 답안"**

**"간부 필독서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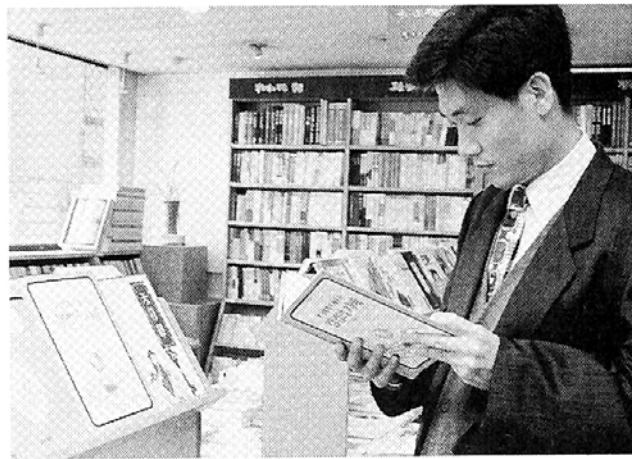
출간돼 10달달까지 불교실용서로서는 드물게 4만 6천권을 돌파한 이 책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내용과 사례를 경영에 접목시켜 경영자 정신, 경영이념과 비전, 현장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할 수록 여타의 권력이나 불순한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바른 기업경영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영전략이라고 결론내린다.(본지 123호 보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복잡 다양한 현대 기업경영의 이상형을 제시한다는 것이 최고 경영자들이 이 책을 즐겨 읽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동양화재 박중익 사장, OB팩주 유희택 사장, 오뚜기식품 함영준 부사장은 오 유교수에게 직접 전화로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또 오뚜기식품의 함영준 부사장은 타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후 크게 감명을 받아 영업부서 간 부들에게 책을 직접 사서 한권씩 주었다는 일화도 전한다. 이밖에도 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가 재계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소리없는 애독서로 인기를 끌고있다.

통 최좌진 사장,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 재계의 거목들이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유교수에게 전하기도 했다.

최근 제테크, 창업 등 출판가에도 돈벌이와 관련된 경제 경영서적들이 상당수 출판되고 있지만 유희화교수의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는 그런 경제경영서적들과는 차원부터 다르다.

어떻게 하면 고정수입을 쉽게 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표피적인 서적들에 비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올바르게 벌고 바르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경영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 책을 출판한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박수형 편집장은 "출간이후 동국대 권기종교수 등 교계인사들로부터

시적으로 적절했고 좋은 아이템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받았고, 그의 지방컨설팅트러닝가 경제계 인사들로 부터 불교를 새롭게 알게했다는 소감을 전해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희화교수는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는 우리가 있고 있는 삶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고, 자기 삶의 경영 나침반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 일제시대 우리공예물의 진가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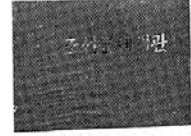
조선공예개관 심우성 번역

환  
제  
의  
책

<조선공예개관>은 1931년부터 1951년까지 일본민예협회가 발간한 <월간공예>란 잡지에서 당시 조선의 공예에 관한 글과 140여장의 귀중한 사진 및 그 해설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단순히 식민시대의 문화정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비록 일본인들에 의해서였지만, 한 시대 우리의 공예사를 고스란히 기술해 놓고 있다. 질공예, 목공예, 도자기 등 조선공예에 접분야를 섭렵함은 물론 격변기에 사라져가는 민예품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시 조선 공예가 처한 상황들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풍경, 촉대 등 불교관련 공예물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동문선 3만원>



출판가 소식

## 최명숙씨 시집 '진실...'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원이자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 뇌성마비복지회에서 활동중인 최명숙씨가 시집 <진실, 그 비움에 관하여>를 발간했다.

이 시집은 '소양호에서 청평사까지' '천축사에 가서' 등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룬 삶에 대한 내용을 담은 50여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시인은 이 시집을 내면서 불교계에도 뇌성마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재활에 더욱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작은 바람을 피력했다.

## 보리원 '초발심 법요집'

대구불교회관 보리원이 <초발심 법요집>을 펴냈다. 불교와의 만남, 불교의 의미, 불교의 근본개념 등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합장하는 법, 절하는 법 등 사찰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을 실었다. 또 불공, 참회, 가정법회 등 각 법회에 대한 의미와 의식 순서도 수록했다. (053)582-7611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행동 | 일 타   | 효 립   |
| 2  | 수행으로 가는 길         | 이 재 열 | 대원정사  |
| 3  | 한국사찰음식            | 김 연 식 | 우리출판사 |
| 4  |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 효 립   | 행 일   |
| 5  | 죽비깅은 아침           | 지 목   | 우리출판사 |
| 6  | 위빠사나 열두선사         | 김 열 권 | 불 광   |
| 7  | 선(작은책 2)          | 지 현   | 민 족 사 |
| 8  | 참선교육              | 현 담   | 수선출판사 |
| 9  | 깨어있는 마음 닦기        | 보 천   | 불 지 사 |
| 10 | 명상길라잡이            | 박 석   | 도 술   |

구입문의: (02)737-0695

## 故 이기영박사 추모문집 '내걸음의...'

## 불연선생의 생애·학문 정리

한국불교의 거목으로 지난해 11월 9일 세미나 현장에서 타계하신 고 불연 이기영박사의 1주기를 맞아 한국 불교연구원에서 추모문집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여래 刊)를 발간했다.

이 문집에는 원효연구의 대가로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해 한국불교학의 연구기풍을 진작시켰던 고 이기영박사가 평생동안 공부하며 느꼈던 삶과 사색의 글들이 담겨있다.

제1장 '길을 찾아서'에는 20세때 경성제국대학에 예과에 입학해 하숙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영어, 독어,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의 학문을 접하다 학도병으로 끌려간 이야기에서 부터 공산치하에서의 교사생활 등 이박사의 초년기의 삶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다.

제2장 '동과 서를 넘어', 제3장 '진리는 하나', 제4장 '보살의 길을 따라', 제5장 '영원한 것은 마음'에는 이박사가 유학시절에 경험한 다양한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문에 대한 고민,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 등을 비롯 귀국이후 각종 신문, 잡지 등 언론에 두고 했던 글들이 연



도별로 정리돼 있다. 이같은 글들속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모든 것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아님이 없고 문 아님이 없다'는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일평생 품고 살아온 이박사의 생애와 사상이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이박사의 연보와 주요 저작목록, 이박사의 40년지기 친구 위베르 듀르트교수의 '유학 시절의 불연회상'과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정병조교수의 발문 '번 길을 떠난 남에게'를 실어 고인이 된 이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 '선학의 황금시대' 19년만에 재발간

당대(唐代)의 선사들에 의해 제독되고 교시되었던 불교의 진리인 선학(禪學)을 고찰한 <선학의 황금시대>(천지 刊)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78년 삼일당서출간이후 절판됐던 것을 역사 이남영교수(서울대)가 19년반쯤 안 보다 쉽게 다시 번역, 선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펴낸 것이다. 선의 기원과 중요성, 달마와 그의 직계제자 등 선사와 선종의 전개에 대해 살피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석학 고우징승(吳經勝)박사다.

## "불상이름 외우지 않아도 알아요"

### 전병철씨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펴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는 역사 용어들을 상식의 틀안에서 풀이한 책이 나왔다. 새롭게 읽는 역사상식 알아서 좋은 역사용어를 정리한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팔만대장경이다>(내일을 여는 책 刊)가 바로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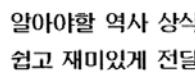
절이나 박물관에 가 보면 수많은 불상과 탑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불상과 탑이 갖는 의미와 시대별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지, 왜 불상 이름은 그렇게 길고 복잡한지를 생각하다 보면 조상의 숨결을 느끼기보다 막막할 때가 많다. 또 왜 옛날 지배자의 이름은 그렇게 많은지, 역사극을 보며 그 많은 왕실 여인들의 이름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짜증날 때도 많다.

이 책은 일상생활속에서나 학교수업시간, 또 문화유산 답사를 갔을 때 꼭 알아두면 좋다고 판단되는 역사상식 13가지를 뽑아 새롭고 재미있는 해설과 관련 사진, 그림 등을 곁들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승우씨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처럼 치부해 버리는 생활 속의 역사문제를 하나하나 꼬집어 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낸 이 책은 현재 공주 농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역사교사 전병철씨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펴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 답은 다 가짜' 부분에서는 답의 기원을 설명하고,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시대별 답의 특징은 '답을 보면 그 시대 정치가 보인다'에서 고찰한다. 또 '알고 보면 의외의 것도 없는 불상 이름'에선 불상 이름 짓는 법을, 불상만 봐도 그 시대 정치가 보인다'에서는 시대별 불상의 특징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또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과 알 것 같은데 잘모르는 공휴일 기념일의 제정과 의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알아야할 역사 상식 쉽고 재미있게 전달

#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최신간

##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욱 옮김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전하고 싶은 인간적 삶에서 우리나라의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필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모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예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치와 위신을 버리고 게을러져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애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 법구경

상·하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문 / 292원 / 각권 26500원

##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문 / 432원 / 217000원

## 란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문 / 294원

## 부처님의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문 / 400원 / 217000원

## 판차란트라

감로수위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문 / 440원 / 21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에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릴것입니다.